

#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

**탄**소시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특수한 시장을 지칭하며, '탄소시장'이란 명칭은 온실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탄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하고 있다.

탄소시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시장은 크게 Kyoto Compliance 시장, Non-Kyoto Compliance 시장, 자발적 시장, 소매시장 총 4개의 시장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탄소시장 내에서의 거래 형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개념인 프로젝트 거래와 국가나 기업에 할당된 배출량 중 일부를 거래하는 개념인 할당량 거래로 구분된다.

세계 탄소시장은 2004년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2006년 3분기까지 215억 달러의 거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0년까지 약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시장이 이같이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선진국의 기업들이 많은 비용이 드는 온실가스 감소나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배출권 구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투자은행(IB), 헤지펀드 등의 해외 금융기관들은 탄소시장을 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표방하는 한편 새로운 수익원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 2006년 5월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 등에 투

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30억 달러를 탄소 배출권 구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골드만 삭스, 메릴린치, 도이치 뱅크 등의 IB들도 사모펀드 조성, 해외 탄소펀드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헤지펀드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투자를 단행하였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펀드란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조성한 후 온실가스 저감사업이나 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탄소펀드를 조성한 금융기관은 조달된 펀드를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단순히 배출권을 선물 형태로 매입한 후 재판매한 차이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기업이 단독으로 배출권 관련 투자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탄소펀드는 펀드구성을 통해 탄소 저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수반되는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방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투자대상으로는 저감사업이나 배출권 투자 외에도 저감사업 관련기업 주식이나 다른 탄소펀드도 포함된다.

탄소펀드 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개의 탄소펀드가 총 25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탄소펀드는 조성 방법에 따라 크게 공격기금 형태와 민간기금 형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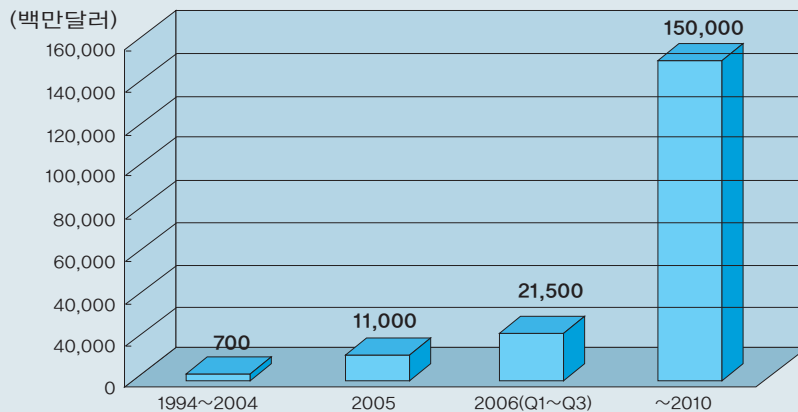
박형건 전임연구원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leopark@kdb.co.kr

구분된다. 이중 대표적인 공적기금 형태의 탄소펀드는 World Bank 주도로 2000년 4월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탄소펀드 'Prototype Carbon Fund(PCF)' 이다. World Bank는 현재 PCF를 포함하여 총 9개의 탄소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자본금은 약 19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대표적인 민간 탄소펀드로는 2005년 6월 Fortis Bank, CDC 등 유럽의 9개 금융기관 주도로 만들어진 'European Carbon Fund(ECF)' 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탄소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탄소펀드 조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행히 정부도 우리나라가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고 탄소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여 2007년 2월 올해 안으로 국내 첫 탄소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UN의 승인을 획득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사업은 국내 업체들의 기술적 검토 능력 부족과 금융권의 인지 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부분 일본 등 선진국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금번 탄소펀드 조성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자금 조달부터 수익 실현까지 모든 사업 절차를 국내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탄소펀드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달성하는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환경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탄소시장 진출은 사회 공헌의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탄소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친환경기업으로 인식되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서 설명된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탄소시장은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시장으로 금융기관에게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탄소시장 진출을 통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여 국내시장뿐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펀드 연도별 투자현황